

# “황룡사 대중 과연 찾을까”

## 경주시 내달 해저탐사... 감은사대중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동해안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황룡사대중을 찾기 위한 해저 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일 황룡사대중과 감은사대중이 수장된 곳으로 전해지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대왕암과 대동천 일대의 해저 및 강 탐사에 착수키로 하고 정부에 유물발굴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내달부터 본격적인 탐사작업에 나서기

저가기 위해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냇가를 이용, 동해 쪽으로 옮겨지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전복되면서 문무대왕릉인 대왕암 주위에 수장됐다고 각종 문헌에 기록돼 있다. 실제로 <삼국유사> 제3권 '탐상' 편에는 '신라 경덕대왕이 천보13년 감에 황룡사 종을 주조했는데, 길이는...시주는 효정이왕(孝貞伊王) 삼모부인(三毛夫人)이며, 장인(匠人)은 이상택 하전(下典)이었다' 라고 적혀있다.



◇ 황룡사대중이 수장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 경북울진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의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황룡사대중은 15x 규모로 존재한다면 단연 세계 최대의 종이다.

## 신라 경덕왕때 주조... 몽고침입때 수장 구리 50만근 무게 에밀레종 4배 크기

로 했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13년(AD 754년)에 제작된 황룡사대중은 구리 50만근을 녹여 만든 거대종으로 높이 312cm 무게 27cm 무게 149에 달한다. 고려 고종 25년(AD 1238년) 몽고족의 침입 때 황룡사가 소실된 후 몽고군이 자국으로 가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종은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으로 높이 333cm 입자름 227cm의 규모다. 또 한국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원사대중(국보 제36호)은 높이 167cm 입자름 91cm의 규모로, 황룡사대중은 성덕대왕신종과 비교해 4배나 크며 조성시기도 17년이나 앞선다.

크게 손상돼 종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은 미얀마 만다레이에 소재한 '민군'으로 무게 9t에 입자름 509cm 규모로, 황룡사대중과 비교하면 5분의3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제작연도와 규모 등에 대한 기록

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감은사대중도 마찬가지인데 왜병들이 일본으로 운반하려다 배가 침몰하면서 사할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황룡사대중과 함께 감은사대중 찾기도 어렵다.

경주시는 이미 해군에 탐사합조를 의뢰했으며, 필요할 경우 미해군의 협조를 얻는 등 적극적인 탐사작업을 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어 '문화유산의 해'에 동해바다에서 황룡사대중이 떠오르는 감격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영우 기자

## 선교양종 통합 업적 재평가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태고보우 범종조명' 학술회의

### 보조국사와 비교평가 종조논쟁 지양해야

태고 보우국사의 범종은 중국의 임제종 계통만도, 한국의 구산선종 종맥만도 아니며, 오직 선교양종을 통합한 고려 원종불교(圓融佛敎)의 초조(初祖)이자 한국 불교의 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태고 보우나 보조 지눌이라는 식의 종조논쟁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5일 태고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덕암)이 주최한 '태고 보우국사 범종 재조명' 학술발표회에서 윤재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은 '태고 보우의 범종과 범종' 주제발표를 통해 태고 보우국사는 중국의 선맥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불교의 선맥을 형성했으며, 원종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종파나 교파에 속하지 않는 한국통불교의 초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재스님은 자종(自宗) 자파(自

派)의 관념에 의해 지나치게 범종을 따지는 종조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그 사적(史的) 위치'를 주제로 발표한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태고 보우국사는 간화선법을 본격적으로 수용, 새로운 선종을 진작시켰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선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교수는 태

고 보우가 보조 지눌에 비해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범종을 따지는 종조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춘교수(동국대 불교학)는 '태고 보우시대의 불교사회' 주제발표에서 여말 당시 보우국사의 불교개혁 추진과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돼 온 한국불교의 주류적 사상경향 및 그 문헌관계 등에 비추어 한국불교 종중조로

서 의의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강건교수(전북대 철학) 최정렬교수(조선대 철학)는 공통적으로 '태고 보우국사를 한국 통불교의 시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답변에 나선 윤재스님은 "현재 한국불교는 조계종, 태고종 등 여러 종파로 나뉘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통불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태고 보우국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선·교 통합을 위해 노력한 보우스님을 통불교의 종조로 삼자는 것은 하나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은 이날 학술발표회에 이어 '태고 보우국사 전서(전2권)'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우

“백제 금동광배 돌려달라”

지난해 임시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일반에 새로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던 백제 금동제 원형광배(圓形光背)를 원래 출토됐던 곳으로 돌려 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부여의 학계 및 관련기관, 단체와 주민들은 최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쌍벽을 이룬 만한 백제

부여시민·학계등 주장

금동제 원형광배를 빼앗은 시일 내에 문화재지정과 함께 국립부여박물관으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1년 부여 부소산성에서 발굴된 백제 광배는 국내 유일의 금동제 광배로, 작으면서도 섬세하고 기법이 뛰어나 국보급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 2만여 불서 색인·교양강좌 눈길

부도힐이 사이버 기행  
기행불교도서관

불자네터전의 교양을 높이고 스리랑카를 비롯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불학연구단체의 학술교류를 꾀하기 위한 사이버 불교도서관이 싱가포르에서 개설됐다. 지난 1981년 스리랑카의 불교교육을 증진시키고 불학연구의 심도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불자네터전이 방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가상 불교도서관'은 지난 1993년에 개설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불교도서관 소장도서와 관련한 '색인' 검색이 가능해 불서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불교도서관은 매일 3천여명이 도서관을 방문해 경전·철학·명상·예술 등 2만여권의 불교도서를 열람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양철학·서양종교학·비교종교학·언어학 등과 관련된 도서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사이버 불교도서관은 교양강좌를 개설해 놓고 매일 15회 이상의 강연을 갖고 강연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강의록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계 등이다. <http://sunflower.singnet.com.sg/~buddhib/> <욱>

## 法數로 배우는 불교

### 일념

백장정규(百丈淸規)로 유명한 당나라 때의 고승 백장화해(百丈懷海)선사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눈을 떴다.

“낮 같으면 시자를 불러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겠지만 깊이 잠들어 있는 시자를 깨울 수 없어 선사는 망설이다 그냥 자리에 다시 누웠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선사가 일어나 문을 여니 뜻밖에

도 잠들어 있을줄 알았던 시자가 깊은 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괴이하게 여긴 선사가 “네가 어찌 알고 나에게 물을 끌어왔느냐”고 묻자 시자는 “누군지는 몰라도 잠자고 있는 저를 흔들 어 깨우더니 물을 끌어 큰 스님께 갖다 바치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백장선사는 손가락을 휘기며 “아차 내가



◇현정 작.

한 생각들을 내면으로 돌이켜 집중한 한 생각으로 만드는 일은 불교수행의 공동된 과제인 것이다. 일념(一念)으로 엄밀하고 일념으로 절하고, 일념으로 참선하는 것이 나중에는 생활속에 젖어들어 자고 먹고 일하는 속에서도 지속된다면 그는 부처님을 향해 곧장 가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세력이 붙어나 인과를 초래해 하고 얽매임을 가져오게 한다.

일념이라는 글자를 불경에서 쓸 때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중생들의 일고 깨지는 한 생각 한 생각 그 자체를 들어서 한 생각 그 자체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는 반대로 일고 깨짐이 없이 일관되게 하나로 집중되어 흠여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말할 때가 있다.

앞의 일념이 불법을 수행하지 않는 일반 중생들이 쓰고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작용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뒤의 일념은 불법을 닦

## 동요없는 영원한 마음

일어나는 생각 늘 살피고 안으로 집중  
보고 듣는 경계 2달리면 인과 얽매여

그만 헛수행을 했구나. 한순간에 내마음(一念)을 단속 못하고 흘러 보내어 토지신에게까지 들려 이 지경에 이르더니...” 하고 탄식을 하였다.

이 일화는 중국선사들의 전기와 범어를 기록한 <조당집(趙堂集)>에 나오는 얘기이다. 우리들로서는 백장선사가 토지신의 보호를 받을만큼 도력이 높은 분으로 여겨졌지만 정작 백장선사 자신은 그것을 오히려 큰 수치로 여긴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의 마음이란 생각생각이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안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백장선사로서는 이점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면서 실천했던 것이다. 밖으로 일하고 예뻐드리고 좌선하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마음 관리를 철저히 할 줄 알 때 수행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분은 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는 늘 보고 듣는 경계를 따라 흐르고 움직인다.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차단시키는 작업이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도 실은 이곳에 초점이 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생각

는 수행자가 참선을 한다든가 염불을 한다든가 하여 마음이 안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천태학이나 화엄학에 의하면 중생들의 일념은 그것이 앞서의 두 측면처럼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을 막론하고 일념 그 자체에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천태학에서 말하는 일념삼천(一念三千)설과 화엄학에서 말하는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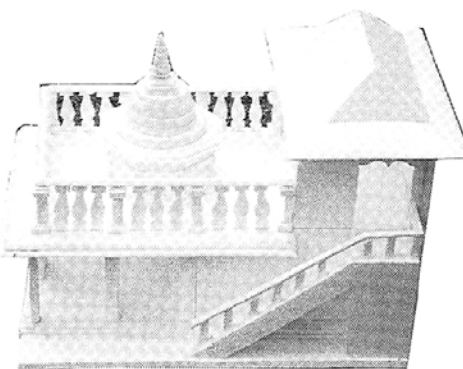
누구라도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비추어보는 수행을 거듭할 것 같으면 필경에는 깨달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수행이란 결국 이러한 '일념'을 바로 지키고 비추어 자신의 일념 내면속에 깃들여 있는 참부처를 친견하는 일이다.

한 생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일념은 이렇게 누구나 지니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이지만 향하는 바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건립 모연문

## 스리랑카 불사리탑



전 국민의 75% 이상이 불교신자이며 불교원전이 유일하게 보존된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씨암종의 한 사찰에서 가난하지만 신심이 돈독한 불자 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일요일회 교실(학생수 300명) 짓고 옥상에 사리탑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중단상태에 있어 같은 승려로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파 뜻있는 불자님들께 호소하여 값진 보살행을 권해드립니다. 국적도 다른 미안마의 청정비구승이 주지로 계시는 절이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국 불자와 이 스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값지고 보람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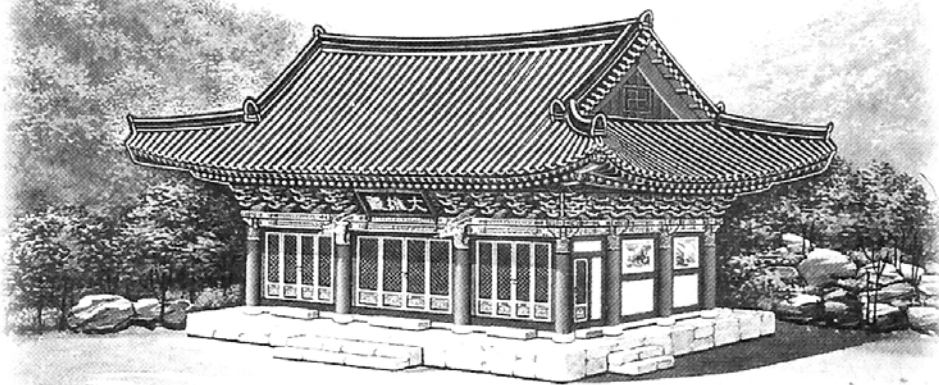
※ 사리탑 건립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필요하신 사찰이나 패업경(스리랑카 국보급)을 모시고 싶은 스님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내 연락처 : 경남 마산시 두척동 대운정사 지운 합창 Tel : 0551-91-0082
- 스리랑카 : VEN. B. CHANDRAMONY THERO SRI RATNAVIHARA - INTERNATIONAL IRIYAWETIYA, KELANIYA, SRI LANKA Tel : 001-94-1-911-875  
구좌번호 : PEOPLES BANK 104333  
예금주 : VEN. CHANDRAMONY

##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은 찬란한 불교 문화를위한 전문업체 입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완벽한 기획, 설계, 디자인으로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불, 사찰건축, 건설전문업체

株式会社 二豊産業 代表 02) 432-7777  
doo pooms 서울 중랑구 영우동 486-8 (우정 8) 전화 02) 439-3900